

今·古文尙書 五行配藏 論爭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張祐彰¹ *

A Discussion on the Controversy of Relation between the Five Changes theory(五行論) and the Five Viscera from 『Geummun-Sangseo(今文尙書)』 and 『Gomun-Sangseo(古文尙書)』

Jang Woo-chang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The five viscera[五藏], one of the key concepts from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human body, endows the characteristic of five phases[五行] on the five representative organs, based on the five phases theory[五行論]. Although the theory from 『Geummun-Sangseo(今文尙書)』 which states the order of 'liver-mok[肝木] heart-hwa[心火] pancreas-to[脾土] lung-geum[肺金] kidney-su[腎水]' is now widely approved by present-day academics concerning arrangement of five changes and the five viscera, there are some other less-known theories of arrangement. 『Gomun-Sangseo[古文尙書)』 had suggested the order of 'pancreas-mok[脾木] lung-hwa[肺火] heart-to[心土] liver-geum[肝金] kidney-su[腎水]', which was never practiced, and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of Ijema(李濟馬) expressed the theory of 'lung-mok[肺木] pancreas-hwa[脾火] heart-to[心土] liver-geum[肝金] kidney-su[腎水]'.

Key Words : The Five Changes(五行), The Five Viscera(五藏).

I. 序 論

『五行配藏』은 五藏과 五行의 대응 관계를 말한다. 『五行大義』의 저자 蕭吉에 의해 ‘配藏府’로 명명된 이래 현재 중국에서는 주로 ‘五行配五臟’이라는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蕭吉의 용법을 따라 ‘五

行配藏’으로 명명하였다. ‘今古文’은 孔子 古宅의 벽속에서 고문(소전체)으로 쓰여진 儒學 경전이 발견됨에 따라 촉발된 일련의 학문적, 사상적 논쟁 즉 ‘今古文論爭’의 今古文을 말한다.

현재 ‘肝木 心火 脾土 肺金 腎水’의 今文尙書說(이하 今文說로 간칭)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脾木 肺火 心土 肝金 腎水’의 古文尙書說(이하 古文說로 간칭)이 존재하여 지금에도 논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黃帝內經』의 전통 하에 별다른 의심없이 今文說을 따라 왔으나, 최근 韓國에서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 의해 ‘肺木 脾火 心土 肝金 腎水’의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E-mail : jangchang@khu.ac.kr Tel : 02-961-0735.
접수일(2008년 12월 10일), 수정일(2009년 2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또 다른 配藏 형식이 제기되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청대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논쟁의 추이를 살펴 보았을 때,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五藏과 五行의 관계에 대한 궁극적 해명이라는 목표를 곧바로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이념적 성향의 논의들이 뒤섞임에 따라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여 의혹을 증식시키지 못하였다. 필자는 유서 깊은 논란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이념적 맥락을 배제하고 今古文『尙書』에 공히 실려 있는 「洪範九疇」에서 천명한 바 그대로 天道의 變化原理를 기준으로 五行의 본래 의미에 접근하여야 함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양자 가운데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틀린다면, 애초에 양자는 용도가 다르다면 지는 고립적 관점을 탈피하여 陰陽五行론 본래의 시각으로 회귀하여 양자를 通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논의 가운데 許愼과 鄭玄의 說, 『五行大義』의 說, 그리고 근래의 懷疑論, 李濟馬의 四象說을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하였다. 許愼과 鄭玄의 說은 이 논쟁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五行大義』에 인용된 자료 가운데 『素問·六節藏象論』의 ‘藏象’ 관련 내용은 今文說을 원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고, 『難經·三十三難』의 說은 今古 兩說의 관련이 암시된 자료로 해석될 수 있어 특별히 거론하였다. 근래의 회의론적 전통에 입각한 논의들은 이 논쟁의 향후 진행 방향을 가늠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론적인 성격으로 『尙書·洪範』과 두 가지 配藏說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II 本論

1. 許愼의 『尙書』起源說

兩漢의 학술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今古文論爭의 와중에 古文派에 속하는 後漢의 經學家 許愼에 의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출되었다.

『今文尙書』歐陽生の 說에 ‘肝은 木이고, 心은 火이고, 脾는 土이고, 肺는 金이고, 腎은 水이다’. 『古文尙書』의 說에는 ‘脾는 木이고, 肺는 火이고, 心은 土이고, 肝은 金이고, 腎은 水이다’. 살피건대, 「月令」에 ‘春祭脾, 夏祭肺, 季夏祭心, 秋祭肝, 冬祭腎’ 이라고 하였다. 이 배열은 『古文尙書』의 說과 동일하다.(今文尙書歐陽說: 肝木也, 心火也, 脾土也, 肺金也, 腎水也; 古尙書說: 脾木也, 肺火也, 心土也, 肝金也, 腎水也. 謹案月令: 春祭脾, 夏祭肺, 季夏祭心, 秋祭肝, 冬祭腎, 與古尙書同.)¹⁾

古文說이 今文說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이미 ‘肝木 心火 脾土 肺金 腎水’의 今文說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古文說 또한 나름대로 유래가 있어서, 『禮記·月令』·『呂氏春秋·十二紀』·『淮南子』 등의 문헌에 이미 나타나 있다. 『禮記·月令』은 陰陽五行의 관점에 입각하여 四時의 변화에 따른 政令의 合致를 기술한 내용으로서, 戰國 末에 呂不韋가 편찬한 『呂氏春秋·十二紀』와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前漢 初에 劉安이 편찬한 『淮南子·時則訓』 역시 「十二紀」, 「月令」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²⁾ 이상은 古文說이 許愼 이전 적어도

1) 陳壽祺 疏. 許愼 撰.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續修四庫全書·五經異義疏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p.131-132.

2)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 궁리출판. 2008. pp.154-156. “『여씨춘추·십이기』는 자연근본적인 세계관과 감응관념에 기반하여 지식, 사상 미치 신앙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이는 십이월이라는 달력에 기초하여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시간적 주기 아래 인간 삶의 질서를 구획한다. 時宜에 맞는 법령 전체를 통칭한 십이기의 시령설은 일정한 패턴과 규칙을 지닌 황로사상의 자연관과 상응하면서 달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 삶의 체도적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 기재된 천상의 변화, 사물의 질서, 농사의 작점, 제의의 순서 및 그 형식의 연원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夏小正』, 『逸周書』의 『周月』, 『時則』 모두 이런 형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령설은 『禮記·月令』에 거의 그대로 편입되었으며, 『淮南子·時則訓』에 영향을 주어 유가와 도가를 막론하고 당시 세계인

戰國 末에서 前漢 初에 이르는 시기에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今文說은 구양생의 활동 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늦어도 전한 중후기에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³⁾ 재미있는 점은 『淮南子』에는 「時則訓」과 「地形訓」에 각각 古文說과 今文說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淮南子』의 편찬 작업을 주도한 劉安은 물론 당대를 대표하는 方士들에 의해 兩說이 각기 나름의 전승을 갖는 의미있는 학설로 공인되고 있음을 확인케하는 사실이다. 「地形訓」에 보이는 今文說은 五體·五藏의 배속까지 정확히 『黃帝內經』과 일치하고 있다.⁴⁾ 또한 劉安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太倉公 淳于意的 診籍에도 脾를 土로 명시하여 今文說을 따르고 있다.⁵⁾ 그러므로 『黃帝內經』이 아니더라도, 今文說이 적어도 戰國 시기로 소급되는 오랜 의학적 전승과정을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古文說은 五方祭와 관련하여 상기한 「月令」 류의 자료에만 나타날 뿐이며, 의학 관련 서적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古文說에는 五藏 이외 인체에 대한 지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鄭玄 이후 대다수 학자들이 古文說의 의의를 五方祭에 한정하고, 의학적으로는 今文說을 지지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許慎은 분명히 ‘今文尙書歐陽說’, ‘古尙書說’이라고

식의 기저를 형성했다.”

- 3) 余自漢，連啓明，李積光，吳傳華，程自勉，陳元宏，劉曉蘭，趙國祥 지음. 김기왕, 인창식, 신승호 옮김.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 일지사. 2003. pp.189-190. “歐陽은 歐陽生으로서 대략 기원전 200~154년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漢文帝(기원전 179~140) 때 구양생은 진나라의 박사 양성소에서 『상서』를 배우고 나중에 금문상서 구양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구양의 상서는 계속 관학에 포함되었고 박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되었다. 금문상서 구양학은 전한 중후기에 형성되었으므로 황제내경의 오행배장설은 전한 중후기 이후에야 성립될 수 있다.”
- 4) 許慎 記. 劉安 撰. 漢文大系(20)·淮南子·地形訓. 東京. 富山房. 1984. pp.11-12. “東方… 竅通於目, 筋氣屬焉, 蒼色, 主肝, … 南方… 竅通於耳, 血脈屬焉, 赤色, 主心, … 西方… 竅通於鼻, 皮革屬焉, 白色, 主肺, … 北方… 竅通於陰, 骨幹屬焉, 黑色, 主腎, … 中央, 竅通於口, 膚肉屬焉, 黃色, 主胃.”
- 5) 司馬遷 著. 二十五史·史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311. “所以至春死, 病者胃氣黃, 黃者土氣也, 土不勝木, 故至春死.”

하였으나 현재 전하는 『尙書』를 보면 今文이건 古文이건 직접적으로 五行配藏 문제를 언급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尙書·洪範』은 天道 運行的 원리를 陰陽五行의 논리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五行論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자료이다. 許慎이 이 今古兩說의 기원을 모두 『尙書』로 보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鄭玄 이후 「月令」의 五方祭로 古文說의 기원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尙書』를 토대로 각 說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밝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심화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일단 문제의 기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2. 鄭玄의 古文說 解釋

許慎의 『五經異義』는 鄭玄의 『駁五經異義』에 실려 전한다. 鄭玄은 後漢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박학을 바탕으로 今古文的 절충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다음 정현의 주장은 이 논쟁에 있어 항상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駁曰：月令祭四時之位，及其五藏之上下次之耳。冬位在後而腎在下，夏位在前而肺在上，春位小前故祭先脾，秋位小却故祭先肝。腎也脾也俱在膈下，肺也心也肝也俱在膈上，祭者必五，故有先後焉，不得同五行之氣。今醫病之法，以肝爲木心爲火脾爲土肺爲金腎爲水則有瘳也，若反其術，不死爲劇。⁶⁾

鄭玄에 의하면 古文說은 四時祭에서 쓰인 방법으로서, 그 원리는 四時의 位와 五藏의 上下 次의 대응일 뿐이다. 의학적으로 今文說이 옳음을 확인하기 위해 今文說과 반대로 하면 죽거나 위중해진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근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文帝 때의 帛書 가운데 정확하게 鄭玄의 說과 일치하는 그림이

6) 皮錫瑞 疏. 鄭玄 撰.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續修四庫全書·駁五經異義疏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152.

발견된 것을 보면 古文說에 따른 제사가 실제로 漢代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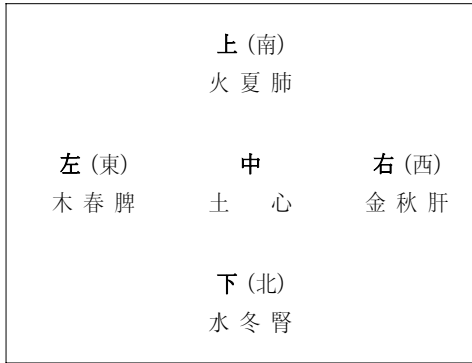


도표 1. 馬王堆 帛書에 나타난 古文 配藏說⁷⁾

古文說은 祭祀에 쓰인 방법이지만 상당한 의학적 지식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古文說에는 ‘五藏’이란 개념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五藏의 내용 또한 肝心脾肺腎으로서 정확히 古文說과 일치한다. 五藏을 확정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았음은 『黃帝內經』에 腦, 膽과 같은 장기를 藏으로 보아야 한다는 方士의 說이 인용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⁸⁾ 그러므로 古文說이 方位와 五藏 上下의 단순한 대응 이상의, 인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五行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鄭玄의 설명에 만족하여 古文說의 의학적 함의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급기야 피상적인 설명에 염증을 느껴 오히려 자체를 부인하는 학자도 나오게 되었다.

그 외 古文說에 대한 초기의 해석으로서 『白虎通』에도 인용된 高誘의 해석이 알려져 있다. 高誘는 今文의 配藏 형식에 근거하여 ‘春祭脾, 夏祭肺, 秋祭肝’을 木克土, 火克金, 金克木의 相克原理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心과 腎에 대해서는, 心의 경우 土는 位가 中央으로서 지극히 준귀하

므로 五藏 가운데 지존인 心으로 제사하고, 腎은 반대로 位가 가장 낮으므로 所勝으로 제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⁹⁾ 이는 五行의 生克을 도식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五行論에 대한 이해가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論外로 한다. 蕭吉 역시 『五行大義·論配藏府』에서 五行配藏 관련 역대 논의를 정리하면서 高誘의 說을 인용하지 않았다.

3. 『五行大義』의 今文說 解明

隨나라 이전의 五行 관련 논의를 집록하여 『五行大義』를 편찬한 蕭吉은 별도로 「論配藏府」라는 篇을 두어 今古文 五行配藏 論爭을 조명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素問·六節藏象論』의 藏象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今文說의 이론적 근거를 추구하는 한편, 今古文 兩說의 관련을 今文說의 입장에서 해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白虎通』의 기록을 인용하여 今文說의 해명 방면에서 자못 규모를 갖추었다. 다음은 『五行大義』에 인용된 『素問·六節藏象論』의 藏象 관련 내용이다.

素問曰：肝者魂之所居，陰中之少陽，故通春氣。心者生之本，神之所處，爲陽中之太陽，故通夏氣。脾者倉廩之本，名曰興化，能化糟粕，轉味出入，至陰之類，故通土氣。肺者氣之本，魄之所處，陽中之少陰，故通秋氣。腎者主蟄，封藏之本，精之所處，陰中之太陰，¹⁰⁾ 故通冬氣。¹¹⁾

살피건대, 今文說이 五行의 精氣를 藏한 五藏이 나타내는 象을 神의 작용을 통해 通觀하는 한편, 五藏의 부위 및 그 생리적 기능이 외부로 발현되는 모습을 合參하여 수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六節藏象論」의 五藏은 九藏 가운데 形藏을 제한 神藏五를 말하므로¹²⁾ 그 象은 形氣의 수준을 넘어서 神의 차원

7) 張效震, 王振國. 五臟配五行原理溯源.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3). p.5.

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42. “余聞方士, 或以腦髓爲藏, 或以腸胃爲藏, 或以爲府, 敢問更相反, 皆自謂是不知其道, 願聞其說.”

9) 班固 撰. 國悟石 主編. 四庫全書精華(24)·白虎通義. 北京. 國際文化出版社. 1995. pp.847-851.

10) 『素問·六節藏象論』 원문에는 肺를 陽中之太陽이라 하고 腎을 陰中之少陰이라 하였다.

11) 김수길, 윤상철 역. 蕭吉 撰. 五行大義. 서울. 대유학당. 1998. p.106.

1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六節藏象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5. “九分爲九野, 九野爲九

에서 通觀된 五行의 본질적인 象을 말한다. 때문에 ‘本’이라 하였으며 魂神意魄志의 五神을 거론하여 재차 ‘本’의 뜻을 부연하였다. 陽中之太陽, 陰中之少陽 운운한 것은 內的 五行運動에 의해 外로 발현되는 형상을 관찰하여 通觀된 五神의 象에 合參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형체의 象을 기준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六節藏象論」에서는 肺를 太陰이라 하고 腎을 少陰이라 하였다. 만일 四時 本然의 象을 기준으로 한다면 肺를 少陰이라 하고 腎을 太陰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실제로 藏의 本氣를 기준으로 한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肺를 陽中之少陰이라 하고 腎을 陰中之太陰이라고 하였다.¹³⁾

한편 『五行大義』는 『白虎通義·五行』을 출전으로 ‘肝所以沈, 肺所以浮, 何’라고 하는 奇說을 인용하고 있다. 다행히 『難經』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그 의미의 파악이 가능해졌다.

三十三難曰, 肝青象木, 肺白象金. 肝得水而沈, 木得水而浮, 肺得水而浮, 金得水而沈. 其意何也. 然, 肝者, 非爲純木也. 乙角也, 庚之柔. 大言陰與陽, 小言夫與婦. 釋其微陽, 而吸其微陰之氣, 其意樂金, 又行陰道多, 故令肝得水而沈也. 肺者, 非爲純金也. 辛商也, 丙之柔. 大言陰與陽, 小言夫與婦. 釋其微陰, 婚而就火, 其意樂火, 又行陽道多, 故令肺得水而浮也. 肺熱而復沈, 肝熱而復浮者, 何也. 故知辛當歸庚, 乙當歸甲也.¹⁴⁾

이는 五行運動의 과정에서 肝木(質)이 金(量)으로 변하고 肺金(質)이 火(陽)로 변하는, 質에서 量으로 변화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藏, 故形藏四, 神藏五, 合爲九藏以應之也.”

13) 그러나 蕭吉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六節藏象論」의 원문을 고쳐 놓았다. 新校正에 의하면 『甲乙經』, 『太素』 등에 이미 肺를 陽中之少陰이라 하고 腎을 陰中之太陰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14)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62-63.

肝은 陰中之少陽으로서 乙木이다. 乙木은 庚金의 對化를 받아 金으로 量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처음에 木으로 부드러웠던 質이 金으로 硬化되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肺는 陽中之太陰으로서 辛金이다. 辛金은 丙火의 對化를 받아 木으로 量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처음에 金으로 단단했던 疾이 木으로 변하면서 물위로 뜨게 된다.

여기서 肝木이 肝金으로 변하고 肺金이 肺木으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白虎通義』는 古文說의 肝金, 肺火의 配藏 형식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미 表裏 간의 質量轉化 현상이 암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五行配藏 원리 전반에 대한 검토로 사유가 심화되지 못하였다. 質量轉化 원리는 근 20세기를 격하여 한국에서 李濟馬가 수립한 새로운 配藏 형식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게 된다.

4. 懷疑論의 提起

唐宋 이후로 『黃帝內經』이 널리 보급되면서 누구도 古文說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수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서구 과학문화의 유입으로 中華文明의 권위가 추락되면서 五行論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 출현하였다. 儒學이 中國의 재앙의 근본이라 주장한 章太炎은 ‘論五臟附五行無定說’이라는 글을 지어 五行과 五臟의 配合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부인하였다. 그는 今古文 兩說이 모두 근거가 없는 관념적인 空論일 뿐이며, 따라서 다른 형식의 배열도 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개진하기에 이르렀다.¹⁵⁾ 최근 이 문제를 국내에 알리는데 기여한 日人 가오우 요시미즈(加納喜光)의 논점은 이 논쟁의 현대적인 추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우선 考證學家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古文說에 조작이 가해져 金文說로 개조되었다는 이른바 조작설을 확인함으로써 상당한 공명을 불러 일으켰다.¹⁶⁾ 또한 역사적으로 古文說이 今文說에 밀리게 이유는,

15) 邢玉瑞, 五行配五臟研究. 山西中醫學院學報, 2004, 5(4). p.1.

16) 加納喜光 著, 中國의학과 철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07.

심을 화로 보는 今文說의 주장이 인체 생리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제시함으로써¹⁷⁾ 의학적 으로 今文說을 지지하는 관점을 재확인하였다.¹⁸⁾ 조각설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後漢 光武帝 연간을 지목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後漢을 일으킨 光武帝가 五德終始說에 입각하여 “漢爲火德”을 주장함에 따라, 심을 토로 보는 古文說에 따른 기록들이 심을 화로 보는 今文說로 대거 개작되었다는 것이다.¹⁹⁾ 許慎의 『說文解字』와 같은 문헌에 일부 조작된 흔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²⁰⁾ 그러나 『黃帝內經』의 今文說은 五藏을 本으로 五體, 五竅, 五味는 물론 診斷, 治法까지 아우르는 整體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五藏만 바꾸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견이다.

단, 조각설에서 토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부분 만큼은 문제의 핵심에 근접하는 견해라고 하겠다. 張效霞는 이 오랜 논쟁의 피상성을 명확하게 짚어내며 논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각설은 의학문제를 완전히 사회의식형태의 영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류이며, 이 문제는 의학의 논리 즉 오장의 기능에 착안하여 오행과 오장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장의 속성을 토대로 今文說을 해명하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순환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 검토를 요한다고 하여 기간의 혼선을 압축적으로 비평하였다.²¹⁾ 그러나 여전히 五行을 논리적 구조물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그쳐, 陰陽五行論의 본질적 수준으로 논의를 향상시키지는 못하

였다.

5. 李濟馬의 새로운 配藏

1894년 朝鮮人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²²⁾,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膻中, 光明瑩澈.”²³⁾이라고 하여 심을 太極으로 규정, 四藏의 勝負에서 독립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配藏 형식을 제기하였다. 李濟馬의 配藏說은 심을 토로 보는 配藏說을 의학적으로 실용 가능한 수준으로 成立시켰다는 점에서 古文 配藏說의 의학적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하면 古文說은 토를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配藏 형식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나 五藏의 공간적 분포만을 단순하게 고려하였을 뿐 五藏의 本質과 表裏氣化 등을 參하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이론의 구축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韓東錫은 일반적으로 『內經』의 五行論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던 李濟馬의 配藏 형식을 ‘肝金 脾火 心土 肺木 腎水’로 규정하는 한편 『內經』의 配藏 형식과의 관계를 ‘質量的 轉化’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학계에 일대 난제를 던졌다. 韓東錫의 설명은 五行配藏의 상이한 형식에 대한, 현재로서 유일한 설명이므로 논의의 전개를 위해 이를 간단히 약술하고자 한다. 먼저 肝木 즉 卯木은 酉金의 對化作用을 받아 肝金이 된다. 肝은 本質은 木이지만 肝의 참다운 기능인 木(기운)은 인간의 장성과 정비례로 金化(경화)하여 가게 마련이다. 또 心火는, 午火가 子水의 對化作用을 받아 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土가 형성되므로 心土가 된다. 다음 脾土는 脾火가 된다. 脾土는 上升之氣를 대표하는 토로서, 五藏의 陰陽運動이 脾氣의 상향성을 바탕으로 氣化作用을 시작하게 된다. 脾土(丑土)는 未土의 對化作用을 받는데, 未土는 현실적으로 우주에서 최대열량을 발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丑土인 脾土는 火原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를 原泉之火라 한다. 또

17) 加納喜光 著. 中國의학과 철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195.

18) 丁彰炫은 『內經』의 다양한 五藏 배열을 시간모형과 공간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古文說을 공간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논점은 기본적으로 加納喜光과 일치한다. 丁彰炫. 『黃帝內經』 중의 時空模型에 대한 연구. 대한한학원전학회지. 2002. 15(1). p.294.

19) 田樹仁. 兩漢改制與心屬火說演變. 中國醫藥學報. 1989. 4(3). pp.52-55.

20) 段玉裁는 許慎의 『說文解字』의 五藏 관련 해설이 今文說에 입각해 조작되었음을 지적하였다.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대성문화사. 서울. 1990. p.168.

21) 張效霞, 王振國. 五臟配五行原理溯源.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3). p.5.

22) 韓東錫 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대원출판. 2006. p.104.

23) 韓東錫 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대원출판. 2006. p.195.

肺金을 肺木이라 하였다. 肺는 質의 質으로 보면 金 속에서 木을 기르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金이다. 그러나 量的으로 보면 木을 기르기 위하여 金으로 포위하는 작용을 하여 華蓋之藏으로서 上焦如霧하여 播敷四藏하므로 木이다. 즉 肺는 외관이 金이지만 내용은 木이다. 腎은 本疾로도 水이고 量的으로도 水다. 水는 만물의 생명이며 정신이며 또한 형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水는 午의 對化作用을 받아서 生成하여 體用의 이면성을 지니면서 사물을 生成, 變化시키는 本體이기 때문이다.²⁴⁾

이를 今文說의 관점에서 보면, 『素問·陰陽離合論』에서 말하는 表에서 裏로, 裏에서 表로 쌍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氣裏形表而爲相成”²⁵⁾의 形氣相成 運動에 비할 수 있다. 『內經』은 質의 변화 즉 內를 기준으로 말할 때에는 일관되게 五行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量的 변화 즉 外를 기준으로 말할 때에는 三陰三陽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 內外를 동시에 말할 때에는 때에는 厥陰風木, 少陰君火 운운하는 表裏兩面的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설명방식을 달리하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해 고래로 『內經』 이해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韓東錫에 의하면 本質을 기준으로 입론되어 관념론적 성격이 강한 『內經』의 五行論을 탈피하여, 五行法則을 量的인 면에서 관찰하고 따라서 이것을 인체의 藏府에 배치한 사람이 李濟馬이다.²⁶⁾

6. 『尙書·洪範』과 四象, 五行

『內經』의 本質 중심과 李濟馬의 量的 변화 중심의 관점 즉 五行說과 四象說은 마치 陰陽처럼 서로가 서로를 生成시키는 表裏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五

行的 관점과 四象의 관점의 차이는 質과 量, 時間과 空間, 主觀과 客觀의 차이에 비견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건은 土와 관련된다. 土는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즉 水火木金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中和로운 기운으로서 五行氣의 相爭을 조율하여 간단없는 生化를 돕는다. 바로 이러한 성질 때문에 土는 주관적 의지를 지니는 사유의 주체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土가 들어간 五行은 주관성과 시간성을 띄는 법칙으로 이해되고, 土가 나온 四象은 객관성과 공간성을 띄는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四象과 五行의 관계에 대해 金榮陸은 『周易·繫辭』의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²⁷⁾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근원적 존재 太極은 始生(分生)을 상징하는 陰陽으로 드러나며, 陰陽은 현상의 顯現性이 四象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四象은 陰陽이 현상화하여 발현된 네 개의 존재구조와 범주를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陰陽은 본래 현상적으로 木火土金水 五行으로 작용하는데 五行 중에 土는 中이자 體로서 객관적으로 현상화하지 않으므로 드러나는 것은 四象構造 뿐이라고 본다.”²⁸⁾

許愼이 今古文 兩說의 기원으로 지목한 『尙書』의 「洪範」은 易哲學의 사유를 정치원리로 구현하여 九疇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변화의 본질로서 五行法則은 물론 변화의 목적으로서 四象構造가 모두 표현되어 있어 두 가지 配藏형식 모두의 이론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먼저 今文說과 관련된 ‘初一日五行’을 살펴 보겠다.

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
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
革作辛, 稼穡作甘.²⁹⁾

24) 韓東錫의 주장은 陰陽五行論의 양대 산맥인 『周易』의 象數學과 『內經』의 五運六氣學을 종합함은 물론이요 正易學의 金火交易論에 李濟馬의 四象說까지 아우르는 넓고 깊은 배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당히 난해하여 별도의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 대략을 밝히는 것으로 그친다. 韓東錫 著,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2. pp.93-99.

2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

26) 韓東錫 著,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2. pp.93-94.

27) 周易·貞.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371.

28) 金榮陸, 四象醫學의 易哲學의 基礎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2). p.156.

29) 조선도서주식회사 편찬. 原本備旨 書傳集注·坤·洪範. 대전. 학민문화사. 1996. p.455.

五行이야 말로 天道運行의 法則性을 표현하는 一大 節目이므로 ‘初一日五行’이라 하여 九疇의 第一로 삼았다. 3단의 설명은 陰陽運動에서 일어나는 質量的 변화를 本體(質), 作用(氣), 成果(形)의 삼절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제1단의 水火木金土는 河圖 先天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五行 本質이 生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木火 등등은 나무, 불 등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五行의 精氣를 말한다. 이야말로 神의 처소로서 生化의 根源이 된다. 제2단의 潤下, 炎上, 曲直, 從革, 稼穡은 五行의 본질을 바탕으로 升降浮沈의 氣機 運動이 外로 表現됨을 표현한 것이다. 제3단의 鹹苦酸辛甘은 質量的 轉化가 外에서 形을 이룸으로서 完결됨을 말한다. 이때 2단과 3단은 表裏, 質量的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表裏 간의 一陰一陽 運動에 의한 질량 轉化的 결과이다. 여기서 土는 四行을 양육하는 本體이므로 마지막으로 ‘土曰’이라 하지 않고 ‘土爰稼穡’이라 하여 土가 生命을 기르는 主체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소문·육절장상론』에서는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脣四白,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이라 하여 오장육부와 사지백해를 영양하는 비를 토로 보았다.³⁰⁾

李濟馬의 配藏 형식은 四象原理를 바탕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인체에 적용시켜 보면 太極之心의 조명 하에 四藏과 四府가 表裏로 合德하는 八卦의 도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易曰：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太極心也，兩儀心身也，四象事心身物也，八卦事有事之終始。物有物之本末，心有心之緩急，身有身之先後，乾事之始也，兌事之

終也，坤物之本也，艮物之末也，離心之急圖也，震心之緩圖也，坎身之先着也，巽身之後着也。³¹⁾

이는 五皇極이 中에 자리하는 九疇의 外內 兩面の 四象構造와 흡사하다.

四 五紀	六 三德
三 八正	七 稽疑
五皇極	
二 五事	八 庶徵
一 五行	九 五福

도표 2. 洪範九疇의 數와 象³²⁾

또한 앞서 ‘一五行’의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가 相生을 설명하는 河圖의 도식에 부합한다면, 여기서 一三四五六七八九의 數는 十이 빠진 落書의 數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洪範九疇’가 『周易』 및 河圖落書의 陰陽五行說, 象數原理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몇가지 유사성만으로 李濟馬의 四象 配藏 형식이 「洪範」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두 가지 대표적인 配藏說이 모두 「洪範」에서 유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 그러나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적어도 易四象을 중심으로 하는 陰陽五行論이 「洪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각각 五行과 四象의 양대 방법론을 통해 의학적 원리로 구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30) 『內經』에서 脾를 土로 보는 관점은 『素問·太陰陽明論』에 잘 나타나 있다.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太陰陽明論.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2. “帝曰：脾不主時，何也。岐伯曰：脾者土也，治中央，常以四時長四藏，各十八日寄治，不得獨主於時也。脾藏者，常著胃土之精也，土者，生萬物而法天地，故上下至頭足，不得主時也。”

31) 송일병, 고병희, 이의주, 이수경, 김상복 편저. 사상체질과 임상편담 제3권·格致藥.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6. p.34.

32) 조선도서주식회사 편찬. 原本備旨 書傳集注·坤·洪範. 대전. 학민문화사. 1996. p.450.

III 結 論

五藏은 한의학에서 인체를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로서 陰陽五行論에 근거하여 5개의 대표 장기에 五行의 속성을 부여한 것이다. 五行과 五藏을 배합하는 형식에 대해, 현재 의학계에서는 ‘肝木 心火 脾土 肺金 腎水’의, 今文尙書說(이하 今文說)에 나타난 배열이 공인되어 있지만 다른 유형의 배열도 존재한다. 의학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古文尙書에서 ‘脾木 肺火 心土 肝金 腎水’의 형식(이하 古文說)을 주장하였으며,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肺木 脾火 心土 肝金 腎水’라고 주장하였다.

古文說은 後漢 때 許慎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後漢의 經學家 鄭玄은 그 의미를 四時祭에 한정하고 의학적 가치를 부인하였다. 또한 원리의 해명에 있어 四時의 位와 五藏 上下 次의 대응이라는 다소 피상적인 해석을 내 놓음으로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사실 이 논쟁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陰陽五行論을 검토케하는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그 전개는 피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內經』으로 대표되는 今文說에 대한 강한 심리적 동조가 古文說에 대한 원리적 수준의 접근을 원초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兩漢의 經學界를 달구었던 今古文論爭이 지니는 정치사상적인 색채에 의한 간섭현상이 문제를 학술적 차원에서보다 정치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성급함을 부추겼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째든 시종일관 古文說에 대한 원리적 고찰은 鄭玄이 제시한 方位說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其間에 『難經』과 『白虎通義』에서 質量 轉化의 관점을 도입하여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陰陽五行論의 본질적인 수준으로 쟁점이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古文說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결국 今文說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물이해를 가져와, 일부 考證學家들에 의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상 특정 시기에 古文說이 광범위하게 今文說로 개작되었다는 조작설을 낳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今古文 兩說이 모두

자의적인 附會일 뿐이며 그 외 다양한 배열 형식도 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배태되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今古文의 五行配藏이 牽強附會일 뿐이라는 주장은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리는 무엇이나 하는 근본적인 수준으로 문제를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긴 논쟁이 전혀 무익한 일은 아니었다.

우연하게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외부에서 던져졌다.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 제기된 心을 太極으로 놓는 四象論에 기반한 配藏 형식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韓東錫은 『內經』의 本質 중심 配藏과 李濟馬의 表裏 중심 配藏의 두 가지 상이한 형식이 서로 表裏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여 오랜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尙書·洪範』을 기준으로 본다면, 『內經』이 「洪範」 ‘初一曰五行’의 本體(質), 作用(氣), 成果(形)의 삼단변화 가운데 本體를 중심으로 配藏한 것이라면, 李濟馬는 五皇極을 중심으로 外內를 四象構造로 파악하는 「洪範」 전체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상이한 배열 형식들은 陰陽五行論에 대한 깊이있는 사유를 거쳐야만 그 의미와 가치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尙書·洪範九疇』를 중심으로 『周易』의 河圖洛書 원리 등에 나타난 象數原理를 참고하여 상이한 배열의 원리를 고찰하면 결국 四象에 따른 배열방식과 五行에 따른 배열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黃帝內經』으로 대표되는 今文尙書說이 五行原理에 입각한 것이라면 李濟馬의 配藏 형식은 四象原理에 입각한 것이다. 古文尙書의 配藏 형식은 心을 土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四象原理에 입각한 배열을 추구하였으나 정합적인 체계를 구성하지는 못하여 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參考文獻

〈논문〉

1. 丁彰炫. 『黃帝內經』중의 時空模型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2. 15(1). p.294.

2. 金榮睦. 四象醫學의 易哲學의 基礎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2). p.156.
3. 張效霞, 王振國. 五臟配五行原理溯源.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3). p.5.
4. 田樹仁. 兩漢改制與心屬火說演變. 中國醫藥學報. 1989. 4(3). pp.52-55.
5. 邢玉瑞. 五行配五臟研究. 山西中醫學院學報. 2004. 5(4). p.1.
13. 司馬遷 著. 二十五史·史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311.
14. 周易·貞.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371.
15. 加納喜光 著. 中韓의학과 철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195, 207.
16.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 궁리출판. 2008. pp.154-156.
17. 황제내경의 기원. 余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劉曉蘭, 趙國祥 지음. 김기왕, 인창식, 신승호 옮김. 서울. 일중사. 2003. pp.189-190.

〈단행본〉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 35, 42, 112, 116.
2. 조선도서주식회사 편찬. 原本備旨 書傳集注·坤·洪範. 대전. 학민문화사. 1996. p.450, 455.
3. 송일병, 고병희, 이의주, 이수경, 김상복 편저.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3판·格致藁.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6. p.34.
4. 韓東錫 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대원출판. 2006. p.104, 195.
5. 韓東錫 著.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2. pp.93-99.
6. 陳壽祺 疏, 許慎 撰.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續修四庫全書·五經異義疏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p.131-132.
7. 皮錫瑞 疏, 鄭玄 撰.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續修四庫全書·駁五經異義疏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152.
8. 김수길, 윤상철 역. 蕭吉 撰. 五行大義. 서울. 대유학당. 1998. p.106.
9.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62-63.
10.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168.
11. 許慎 記, 劉安 撰. 漢文大系(20)·淮南子·地形訓. 東京. 富山房. 1984. pp.11-12.
12. 班固 撰. 國悟石 主編. 四庫全書精華(24)·白虎通義. 北京. 國際文化出版社. 1995. pp.847-851.